

존경하는 대한생리학회원님께,

안녕하십니까?

대한생리학회 이사장 안덕선입니다.

코로나로 엄혹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학회의 제반 행사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애정을 보여주신 우리 생리학회 회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시기가 공교롭게도 코로나란 미증유의 사태로 우리 모두의 일상이 어긋난 시기였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학회가 그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신 여러 회원님과 실무를 담당해주신 실행이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회 활동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제가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약속드렸던 회원 간의 유대 강화와 젊은 회원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학회 운영에 참여하는 기틀을 만들겠다는 다짐이 제대로 이루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만, 회원들이 주인 의식을 갖고 학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술대회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술대회의 외연을 넓히고자 한 시도나, 의과대학 학생 교육에 사용할 실습프로그램 개발과 교과서 번역 사업 등을 통해 회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한 노력들은 기억에 남습니다. 이사장으로서 좀 더 학회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개인적인 역량의 한계로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였다는 생각에 회원들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차기 회장님께 그 짐을 넘기고자 합니다.

다가올 새해엔 작금의 코로나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리라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것처럼, 학회의 앞날에도 좋은 일만 많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힘찬 2022년을 맞이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대 대한생리학회 이사장 안덕선 올림